



모족지랑가고

저자 윤영옥
(Authors)

출처 [어문학](#) , 1974.10, 51-61(11 pages)
(Sourc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74.10, 51-61(11 pages)

발행처 [한국어문학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63>

APA Style 윤영옥 (1974). 모족지랑가고. 어문학, 51-61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6/20 16: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慕竹旨郎歌考

尹 榮 玉

<內容>

- | | |
|------------------|---------------|
| I. 序 | V. 作歌動機와 그 時期 |
| II. 竹旨郎 | VI. 慕竹旨郎歌 考察 |
| III. 得鳥 | VII. 結 |
| IV. 竹旨郎과 得鳥와의 關係 | |

I. 序

千餘年 뒤에 우리가 享有할 수 있었던 新羅의 詩歌文學은 量으르는 十餘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깊이와 多樣으로, 異文字借用의 表記로, 資料의 缺乏으로 우리의 理解의 接近을 쉽게해 주지 않고 있다.

隣接科學, 特히 語學的인 作業이 아직 完美하지 못한 바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올바른 理解의 接近이 可能하다면, 新羅詩歌를 안이 놓고 曰可口呑한다는 것은 장님 코끼리 더듬는 格을 면치 못하겠으나 一面의 近似值라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더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筆者도 先賢들의 論識에 주체 넘게 끼어들어 比較적 理解가 쉬우려라 생각되어진 ”慕竹旨郎歌“를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記錄을 資料삼아 考察한 見解를 記錄한다.

II. 竹旨郎

竹旨郎에 對한 記錄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第二十八眞德女王即位……王之代 有閔川公, 進宗公, 林宗公, 虎沐公, 嶽長公, 廣信公 會于南山弓知岩 議國事……

<三國遺事卷一眞德王>

- ② 初進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麗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赫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

號 夢見居士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性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通告其死 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誕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岑 造石彌墩一級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貞德, 太宗, 文武, 神文四代爲象宰 安定厥邦……

〈三國遺事卷二季昭王代竹旨郎〉

- ③ (貞德) 二年秋八月 百濟將軍跋相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 陳春, 天存等對軍禦之……

〈三國史記卷四十二列傳第二金庾信〉

- ④ 龍朔元年春 王謂百濟餘賊尚在 不可不滅 以伊浚曷日, 蘇判文王, 大阿浚良隱等爲將軍 伐之 不克 又遣伊浚欽純, 眞欽, 天存, 蘇判竹旨郎等濟師……

〈三國史記卷四十二列傳第二金庾信〉

- ⑤ (太宗武烈王八年四月十九日)班師 大幢特進先行 下州軍敗後 至街竹嶺 遇百濟軍 相圍敗退 死者雖小 先亡兵械輜重甚多 上州郎龍退賊於角山 而進擊克之 遂入百濟屯堡 斬獲二千級 三開軍敗大驚 遣將軍金純, 眞欽, 天存, 竹旨 濟師救援……

〈三國史記卷五 新羅本紀 文武王〉

- ⑥ 龍朔三年癸亥 百濟諸城潛回興復 其渠帥據豆率城 乞師於倭爲援助 大王親率, 庾信, 仁問, 天存, 竹旨等將軍 以七月十五日征討……分兵擊諸城降之……

〈三國史記卷四十二 列傳第二 金庾信〉

- ⑦ (文武王元年) 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問, 眞珠, 欽突爲大幢將軍 天存, 竹旨, 天品爲貴幢總管……

〈三國史記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

- ⑧ (文武王八年六月) 二十日 以大角干金庾信大幢爲大總管 角干金仁問, 欽純, 天存, 文忠, 迦浚眞福, 波珍浚智範, 大阿浚良阿 愷元, 欽突爲大幢總管, 伊浚陳苑(一作春), 竹旨爲京師總管……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上〉

위의 記錄을 通해 竹旨郎을 살펴본다.

그는 眞德女王時 議政에 參與했던 六公中의 한 사람인 述宗公의 아들로, 統三以前 한창 三國이 어지러울 時期에 朔州 近處 竹旨嶺에 居하던 一居士로 述宗公이 都督使로 赴任해 갈 때 고깃길을 다들다가 서트 感動된 바가 많았고, 그가 죽음으로 述宗公夫妻에 顯夢하여 述宗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竹旨嶺의 이름을 따라 〈竹旨〉라고 命名했다.

그가 태어난 것은 眞德女王以前이었고 眞德女王時에는 王命에 依하여 金庾信과 더불어 石吐等七城에 來攻한 百濟殷相의 軍士를 막아 싸웠다. (AD. 649)

太宗武烈王八年에 百濟軍과 싸워 軍敗하였을 때 將軍으로 遣派되어 軍師

를 거느리고 救援하러 갔다. (A.D 661)

龍朔元年春에는 百濟의 餘燼이 尚在하므로 滅하지 않을 수 없어 伊瀛品日 등을 보내어 치제 했으나 이기지 못하여 竹旨가 다시 遣派되어 軍師를 거느리고 나왔다.

龍朔三年에는 百濟가 復興을 潛圖하여 豆率城에 雄據하고 倭에 請兵할 때 王의 親率을 받아 庾信等과 같이 나가 討征하여 降服을 받았다. (A.D 663)

文武王元年에는 貴嶺總管이 되었고 同王八年에는 京停總管이 되었다.

이 이외의 다른 記錄을 찾아볼 수 없으나 ②의 三國遺事記錄에는 庾信公과 더불어 副帥가 되어 三韓을 統一하고 眞德, 太宗, 文武, 神文四代에 冢宰가 되어 나라를 安定케 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 記錄을 믿는다면 竹旨는 眞德王代에서 神文王代까지 出仕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던 그 期間은 眞德王元年이 A.D 647年, 神文王末년이 A.D 691年이니 前後 44年間이 된다.

또 三國遺事의 記錄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라는 것이 보이는데, 竹曼郎이 곧 竹旨郎이니 그는 致仕하고 난 뒤에 花郎으로 徒衆을 거느리고 花郎道修業을 계속 行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眞德王二年 庾信과 같이 出戰한 것이 20歲前으로 假定하더라도 致仕後 花郎이 된 것은 그의 나이 60前後가 되리라 생각된다.

庾信等이 花郎이 된 것이 16歲前後라면 竹旨도 出仕하기 前에 花郎이었던 可能性은 充分히 있으며, 出仕해서도 花郎의 身分으로 계속 徒衆을 이끌고 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得 鳥

得鳥에 關해서는 仔細한 記錄이 없고 다만 三國遺事 卷二 孝昭王代 竹旨郎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鳥級干 隸名於風流裝卷 追日仕進 兩旬日不見 郎與其母 問兩子何在 母曰 恍典幸乘益宜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 未復 告歸於郎……

이 記錄을 보면 得鳥는 孝昭王代 竹曼郎의 徒衆의 한 사람으로 官階는 級干 即 級伐波으로, 新羅 十七等官階의 第九等に 屬한다. 그러나 이 官階는 그가 官職을 얻은 뒤의 것일 것이다. 그는 처음 竹曼郎徒로서 이들을 울려 주고 每日 出榜을 하다가 檀典益宜阿干의 差出에 依하여 富山城倉直이 되

었다. 그리하여 갈길이 급히 花郎에게 報告도 못하고 떠났다.

富山城에 到着하여 倉直이브다는 例에 따라 益宣個人의 私田에서 부역을 쫓다. 그럴때 竹旨郎이 郎徒와 더불어 飲食(舌餅一合 酒一缸)을 갖고 와서 慰勞하고 어렵게 請하여 休暇를 얻어 갔다.

그에 대한 記錄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竹旨郎에 對한 三國遺事의 記錄末尾에

初得烏谷蒸郎而歌作

라는 記錄이 있어, 그가 蒸竹旨郎歌를 創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Ⅳ. 竹旨郎과 得烏와의 關係

三國遺事 卷二 孝昭三代 竹旨郎條의 記錄은 題目 그 自體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花郎 竹旨郎에 重點을 둔 竹旨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竹旨에 關한 記錄은 그의 出生談과 <壯而出仕 與庚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 文武神文四代爲冢宰 安定厥邦>이란 文章으로 要約된 一生만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本條記錄의 前半以上이 得烏로 날미안아 일어난 事件의 記錄이요, 末尾를 註釋해주는 것이 蒸竹旨郎歌로 되어 있다. 이 말이 一然의 것인지, 아니던 金大問의 花郎世紀에서 갖고온 文章인지는 알 수 없으나, 竹旨郎의 人物을 그리기 위해서는 得烏의 事件이 아주 重要했고, 蒸竹旨郎歌가 竹旨郎에 對한 讚을 代身히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得烏事件에 對한 記錄을 보자.

郎曰 汝若私事適彼 見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寧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 率左人而行 郎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樹人 得烏失矣在 人口 今在 倉直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餅饗之

이 記錄은 得烏가 竹旨郎의 郎徒로 每日 出扈하여 修業하다가 한 열흘쯤 結석하기에 그 어디를 몰러 돌으니, 富山城倉直이로 끌려 가려왔다고 말하기에 私事면 찾아볼 것 없으나, 公事로 갔으니 가서 위로 받 주어야 하겠다고 竹旨郎이 말했다. 그리고는 舌餅一合과 酒一缸을 가지고 左人을 데리고 가니 郎徒百三十七名도 威儀를 갖추고 마왔다. 富山城에 이르러 문직이에게 돌으니, 得烏가 益宣田에서 例에 따라 부역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거기에 가서 갖고간 술과 떡을 먹었다.

이 記錄에서 問題는 倉宣이로 差出된 사람이 個人 益宣의 私田에서 例에 따라 부역을 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請暇於益宣 待彼僇避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倪珍管牧推火郡 能節租三十石輸送城中 美郎之雇土風味 鄙宣請塞不運 乃以所額三十石 贈益宣助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本來의 職 倉直이가 아니고 私田에서 부역하고 있는 得鳥가 休暇를 얻어 같이 가기를 益宣에게 請해 보았으나 거절을 당했다. 그 때 나침 推火郡에서 稻三十石을 거두어오던 使吏倪珍이 竹旨郎의 雇土風味를 아름다워 여기고 益宣의 脂塞不運을 더러워 여겨, 거두어 오던 租를 주고 得鳥의 請暇를 도왔으나 그래도 許諾치 않기에 舍知珍節이 騎馬鞍具를 더주니 益宣이 許諾해 주었다.

私利私慾과 財物에만 貪하는 官吏益宣과 郎徒를 사랑하고 아끼는 花郎竹旨가 得鳥로 만나앉아 對照되어 있다.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 將洗浴其垢驕 宣逃隱 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當洗於城內池中 仍合凍死

益宣이 對한 이야기는 朝廷에까지 알려져 花主가 益宣을 잡아다가 더러울을 씻기려 하였으나 益宣이 도망해서 그의 말아들을 잡아다가 마칠 한겨울 城中 뜻에 목욕시켰더니 얼어 죽었다.

이것은 花郎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러운 官吏를 정제하는 이야기다. 花郎을 統御하는 花主가 益宣의 垢驕를 씻기 위해 도망간 아비 대신 아들을 잡아와 한겨울 뜻에 목욕시켜 얼어죽게 만든 것은 人間の 貪心이 물르겠거진다는 생각이요, 아버지를 아들이 대신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思考는 다음에 또 이어진다.

大王聞之 勸牟梁里人從官者 並舍黜避 更不接公嘗 不著羔衣 若爲楡者 不合入鍾鼓寺中 勅吏上僇珍子孫爲柁定戶孫 標異之 時凶測法師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不授僧職

大王子 듣고 牟梁里사람으로 벼슬하는 사람은 전부 쫓아내며 다시는 관리에 등용치 못하게 하고 僧職까지도 갖지 못하게 하고 단약 중이 되더라도 절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租三十石을 賙捨한 倪珍의 子孫을 柁定戶孫을 지켜 달리 標했으며, 반면 當時 海東高德인 凶測法師은 牟梁里人이기에 僧職을 주지 않았다.

의와 같은 史實을 他文獻에서는 發見할 수 없다. 다만 凶測은 渡唐하여

玄裝에게 배우고 그 이름이 中國에 떨쳤으며 많은 著述을 내고 唐에서 入寂했다는 事實만 알려져 있다.

이러한 記錄이 事實이라면 牟梁里人 益宣의 貪慾한 罪가 牟梁里人 全體의 罪가 되어 아무도 베풀하지 못하고 죽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事件들이 得鳥로 하여금 竹旨郎을 잊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더욱 그를 우르러 뜨게 만들었을 것이다.

初得鳥谷 慕躬而作歌라든 動機가 과연 어디에 있지 않을까?

V. 作歌動機와 그 時期

慕竹旨郎歌의 作歌動機나 時期에 關해서는 記錄된 바 없고, 三國遺事에 竹旨郎의 記錄이 끝난 다음,

初得鳥谷慕躬而作歌

란 記錄만 餘할 따름이다.

그러서 지금까지 本歌의 作歌動機와 그 時期에 關한 論議가 많았다. 그것을 大別하면, 그 作歌時期를 竹旨郎의 死後라고 보고 竹旨郎 逝去後의 讚歌 即輓歌라고 보는 見解⁽¹⁾와 다른 하나는 竹旨郎 生存時의 讚歌 또는 慕慕해서 부른 노래라는 見解⁽²⁾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前者는 그렇게 보는 根據를 노래의 內容 “去隱春皆粟米 冬寒兩叱沙吳屋戶以憂音”, “目腫廻於戸는走伊衣”, “遊次叱卷中”等句에 두고 있으며 後者는 그 根據를 遺事本文의 竹旨의 得鳥의 見解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한편 作歌時期의 問題를 本歌의 理解에 아주 重要한 關鍵으로 보는 見解와 그렇지 않은 見解도 있다.

우리는 먼저 本歌를 變換한 記錄을 다시 한번 살펴볼 必要를 느낀다. 分明히 三國遺事卷二에는 “孝昭三代 竹旨郎”이라 記錄되어 있다. 萬若 竹旨郎이 孝昭三代 生存했던 人物이 아니라면 왜 “竹旨郎”앞에 “孝昭三代”를 冠頭했을까 “處容郎 望海寺”나 “葛花惠室”이니 라고 王代를 冠頭하지 않은 標題도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竹旨가 眞德王代부터 20 前後의

(1) 趙在熙 : 〈新羅歌謠研究論叢〉 趙芝齋全集 七卷 p. 90

金東旭 :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p. 22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p. 94.

김성기 : 〈現代文學〉 通卷 146 p. 297 등

(2) 梁柱東 : 〈朝鮮古歌研究〉 博文社, p. 68.

金起東 : 〈國文學概論〉 精研社, p. 79.

鄭然榮 : 〈初得鳥의 語文學的 研究〉 西江夫人文研究論集 第4. p. 103 号

花郎으로 出戰했다고 하면 神文王末年에는 그의 나이 60 前後일 것이고, 그의 아버지 述宗公이 眞德王때 閔川公 庾信公等과 같이 國事議論에 參與한 것으로 본다면 그의 出仕의 始作이 眞德王代라고 推想해 볼 수 있고, (實際 參戰한 것이 記錄으로 이때부터 始作된다.) 60 前後의 나이로 花郎으로서 郎徒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得鳥를 對하는 그의 固執한 態度를 나타내 주는 遺事의 記錄을 보아도 孝昭王代 晩年의 竹旨郎을 推想해 볼 수 있다.

그리고 得鳥와 竹旨郎의 關係가 이루어진 것을 언제로 보느냐도 問題다. 이것은 遺事의 記錄에도, 처음의 關係가 맺어진 것을 孝昭王代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竹旨郎의 傳記라고 할 수 있는 이 記錄이 得鳥의 記錄부터 始作하니, 記錄자가 볼 때에는 가장 重要한 事件으로 보았으며, 그렇게 重要한 事件으로 보았다면 不正確하게 記錄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得鳥谷事件은 當時 政治的으로도 重大한 事件을 誘發했던 것이다.

다음은 記錄된 文章에 “初得鳥谷 慕郎而作歌”에서 “初”가 問題다. 그런데 本文에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란 記錄에도 “初”가 나타난다. 이 “初”의 뜻을 살펴보면, ① 처음 ② 근본 ③이전 ④ 첫 ⑤ 맨앞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³⁾, 本文中에서는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 作者 一絲은 “③以前”의 뜻으로 記錄했을 것임을 文脈上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以前”이란 孝昭王代前이므로 解釋할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즉 竹旨郎의 傳記(生涯)를 다지기 전, 換言해서 竹旨가 죽기 “以前”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本歌의 製作時期는 孝昭王代, 竹旨郎의 死去以前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이 戀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러면 그 作歌動機는 무엇일까? 그것은 死後의 眞蹟이 아닌 慕郎而作歌이다. 慕의 客體는 郎이요, 慕의 直接的動機는 倉直한 益宣에게서의 解放이라 하겠다.

得鳥가 竹旨를 益宣私田에서 다지 퇴은 것은 머나먼지 열환을 조급 願望을 것이다. 그 동안 得鳥는 倉直의 任務를 遂行하기로다 例에 따라 益宣私田에서 부역을 했고, 竹旨는 倉直이 得鳥를 만나러 갔으나 厓外에도 個人田에서 부역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慰勞하고 益宣에게 休養를 請했다. 得鳥를 찾아간 것은 慰勞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를 빼앗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休養를 請했다는 것은 得鳥의 身處이 좋지 않았거나 몸져 病

(3) 設三種：〈大漢辭彙典〉省文社，p.163.

을 當하고 있었다는 것을 料해 주는 것이 아닐까? (勿論 不當하게 勞動을 強要當하고 있는 것도 그 한 理由가 되겠지만) 그리고 侃珍이나 珍節이 租三十石과 騎馬鞍具까지 주어서 助誦한 것은 郎의 重土風味이만 感動한 것이겠는가. 得鳥가 例에 따르기는 하였지다는 大端히 苦惱을 當하고 있었다는 것은 事實일 것이다. 그런데서 그를 救해준 사람이 바로 竹杼니 그의 感激한 바는 至極했을 것이다. 이더한 感激과 感動은, 山水勝地에 遠遊하여 精神的肉體的 修養도 하고 風流韻事를 行한 得鳥로서는 充分히 詩化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Ⅵ. 慕竹旨郎歌 考察

解 讀[※]

去隱春猶[○][○]米 毛冬居[○]叱[○]沙[○]樊[○]屋[○]戶[○]以[○]憂[○]音.

- A. 가논 볼이다 다스리며 모든 것이사울모어 설을
- B. 간쑤 그리매 드든 것사 우리 시름
- C. 간쑤 그리며 풀잇사 울음 이 시름
- D. 잔 남 가리개 모든 것사 울음 이 시름
- E. 잔 볼 지리개 볼물 거스사 우음이(로)시름

阿冬音乃北好支腸烏隱 貞克年敏就音隱支行齊

- A. 어퇴매 나를 료화장산 것 年數 날음에 베틀다 너지
- B. 아롬 나토샤은 쓰지 살쥔 더니져
- C. 아롬 나토(入)샤은 뭇(즈시)살을 더스니져.
- D. 아롬 나고티 주은 쫓이 나수 다름더기 겨제.
- E. 아롬 나호시은 쓰지 나히 나를 더니져.

目[○]隱[○]廻[○]於[○]戶[○]七[○]辺[○]伊[○]衣 誰[○]烏[○]支[○]隱[○]知[○]作[○]乎[○]下[○]是

- A. 目隱 쉼 소리에 닳나오어 지스오이리
- B. 눈 들칠 사이에 닳효옴디 지소리.
- C. 눈^(연) 돌일스^(철)사이에 닳효옴 쫓디 지스호리.
- D. 눈갈 돌을칠 사이에 닳오리 굶디 것크카이.
- E. 눈 들을칠 소이의 닳효악디 것오한이.

* A—心倉逸乎, B—梁柱東, C—池窟英, D—김선기, E—鄒然燦.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 A. 郎이야 그럴 모습의 너울 길이 쪽질 굴형에 잘 밤이 잇이리(오).
- B. 郎여 그럴 모습의 너울 길 다붓 굴형에 잘밤 시시리.
- C. 郎(님)여 그 모습의 너울 길 떠스(덕뒹)굴형히 잘밤 잇호리.
- D. 넌이야 가릴 마산에 너울 길, 부진 굴형에 잘밤 알카이.
- E. 郎也, 그럴 모습의 너울 길 다붓(스)굴형에 잘 밤 이시하이.

위에 쓰인 釋讀의 예에서와 같이 正確한 것이 어느 것인지? 아니면 正確한 釋讀을 아직 期待할 수 없는지 모르겠으나 表記나 그 解釋에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現象下에서 本歌를 分析考察한다는 것은 하나의 서투른 冒険이라는 것을 아나 筆觸 나름대로 몇 가지의 意見을 披瀝해 보코자 한다.

① 去隱春皆理米, 毛冬屈叱沙哭屋尸以憂音

詩想의 일으킴이다. 話頭를 쓰집어 내기도 어려운데 한 편의 詩想을 이같이 始作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去隱春皆理米”라고 始作할 때 春夏秋冬 四季中 봄이, 그것도 지난봄(昨春)이 唯獨 強力한 印象을 갖게 만들어 주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움의 對象인 郎 러문일 것이고, 또 昨春의 事件 때문일 것이다. 지난봄을 도둑처럼 생각해 보니, 먼저 떠오르는 回想은 益宣私田에서 부역할 때의 自身の 勞苦와 飢餓과 郎과 사이의 事件을 서넛고 눈물나던 시름뿐.

②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兒史 年數就音隨支行聲.

그러나 그 시름을 들어 주고 慰勞해 주며 苦痛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게 해준 분이 있으니, 언제나 아들다운을 나타내 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이미 老老하신 분, 이제 그만 나이를 더 잡숫지 말으셨으면.”⁽⁴⁾

前 ①分節에서 回想되어진 것이 눈물 점도복 한 시름이라면, 그 시름을 잠깐이라도 떨치게 주신(어렵사리 休假를 請해서) 郎의 願望에 應이 이어졌다는 것은 극히 自然스런 것이고, 願望을 내려 주신 그 님에게 幸福無窮하여 千言萬語를 누터도록 祈願하는 것도 自然스런 想의 發展이다.

③ 回徑猶於尸七史伊衣 翁烏文惡知作乎下是.

그러나 그런 고운님을 恒常 옆에서 侍奉할 수는 없어도 暫問사이에라도 만나 올릴던 그 얼굴 보았으면, 그러나 이미 出仕하여 말은 마 臆分이 있으

(4) 이러한 詩想은 後期 萬傳 등의 敦老歌에서도 發見되어지는 것이다.

나 卽得鳥는 休暇後 倉直이의 任務를 遂行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니,⁽⁵⁾ 전날과 같이 每日相從할 수가 없고, 그리유이 사투쳐 노려가 되어 나올 정도면 그 사투침을 푸는 길은 만남이다.

前 ②分節에서 먼저 고운님 늙지탈게 祈願해서 고운님을 머리에 떠올리나 그 思慕의 對象을 만나고 싶은 心思가 될은 어찌할 수 없는 理勢가 아니겠는가.

④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 遂次叱巷中 宿尸夜音有叱下是

그러나 만날 수 없는 형편. (富山城의 倉直이었으니까 任所를 떠나기가 어려웠겠다)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推仰과 追隨로 바꾸어 님(郎)의 行蹟과 人品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려면 애로는, 쪽대 발끝을 헤쳐나가다 지쳐 쓰러져 잠들듯,⁽⁶⁾ 무수한 고난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님의 恩願과 가르침(花郎의 修業을 통해 얻은 教養이니)에 報答하고 그 님을 推仰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④의 分節은 總結句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는 讀者婆郎歌의 第四分節(7,8句)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⁷⁾

이리하여 本歌는 第①分節의 回想이 第②分節 回想의 主體 對象에 대한 祈願으로 第③分節에서는 그 對象을 만나고자 하는 願望으로 發展했다가 第④分節에서는 그 對象의 人品과 行蹟을 본받겠다는 誓願으로 끝맺는 構造를 가졌다고 하겠다.

(5) 遺事の 記錄에 益宣의 倉直이 花主에게 알려져 据號를 셋기 위해 잡으러 보냈더니 益宣은 도망가고 그의 아들을 대신 잡아와 池中에 沐浴시켰더니 열어 죽었다는 記錄으로 보아, 또 죽가에서 赤梁理人의 관직을 박탈한 것으로 보아 益宣은 上院으로서의 자리에서 물러갔으나 得鳥는 本來의 倉直의 職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6) 蓮芝煎님은 前掲書에서 <遂次叱巷>을 蒿里 곧 무덤으로 해석하여 舍句를 “임그리는 마음이 일을 좇아 무덤가에 하룻밤을 새우려라”로 보고 있고, 김진기님은 前掲書에서 “님을 그리는 마음 때문에 님의 뒤를 쫓아가자 하며, 어둠은 길에서 이른바 風聲露宿하는 것도 작오하고 있겠습니다”로 풀이하고 있으나,

李在鏡교수는 “郎을 生前에 만날 수 없다는 内部的인 意圖狀態의 空虛 그것은 바로 無土나 廢墟 그것이다”고 하여 <遂次叱巷>을 意識狀態의 空虛에 擬比된 것으로 보았다. (鄉歌의 語文學의 研究 p.177)

(7) 讀者婆郎歌의 第四分節(7,8句)는 “郎也持以支如賜鳥隱 心未除叱將遂內良將로 梁柱京님은 “郎이 다니다사는 무수미 도할 쫓아가겨”로 읽고 있다.

藤竹旨郎歌의 第四分節은 讀者婆郎歌의 第四分節과 第五分節에 해당할 수 있는 詩想을 하나로 壓縮해서 表現해 놓은 感이 있다.

“遂次叱巷中宿尸夜”은 作者가 따르키 그말을 어려운 郎의 人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Ⅷ. 結

거의 零에 가까운 資料와 아직 完全한 釋讀조차 期待할 수 없는 現在로서 이 論考의 內容 亦是 假想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假想에 不過한 것이 겠지만 지금까지 說來래은 本를 要約하여 結論에 代하고자 한다.

1. 竹旨郎은 眞德王代 議政에 參與했던 述宗公의 아들로 眞德王代에서 神武王代 四代에 걸쳐 出仕한 花郎出身으로 致仕後인 孝昭王代에는 60 前後의 老花郎으로 徒衆을 계속 이끌며 指導했을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 같다

2. 得鳥는 孝昭王代 竹旨郎徒로 修業하다가 富山城倉直으로 差出되어 公職을 始作하여 職位官階는 級干即級伐瀆으로 新羅 十七等官階의 第九等に 屬했다. 그리고 그는 慕郎而作歌하였다.

3. 得鳥가 益宣阿干에 依하여 富山城倉直으로 差出되어 益宣의 私田에 赴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得鳥와 竹旨郎 사이에 異なる 關係가 맺어졌으며, 그러한 關係를 맺게 됨은 國家的으로도 重大한 措置를 하게 되는 結果를 招來했다. 이는 飄飄招美해서 人格을 修養하고 鍊磨하는 花郎精神을 國家가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을 實證해 주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三國遺蹟의 記録이 竹旨의 傳記라면, 그 序頭를 粧飾하는 得鳥에 依한 一連의 事件은 竹旨의 人間을 나타내는 竹旨一生의 重大事이며, 그 重大事의 記述이 不正確할 수가 없으니 竹旨와 得鳥의 關係가 이루어진 것은 孝昭王代이고, 本歌가 지어진 것은 得鳥事件이 있었던 다음해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初得鳥谷慕郎而作歌”에서 “初”의 文脈上的 解釋으로 보아 竹旨가 죽기 以前 倉直한 益宣에게서의 解放으로 得鳥의 竹旨에 대한 感動은 至極했을 것이요, 그것이 慕郎而作歌한 動機가 아닌가 생각된다.

5. 그렇게 본다면, 本歌의 第一分節은 益宣私田에서 부역할 己의 自身의 모습과 益宣과 郎과의 서툰고 눈물집던 事件의 回想이며, 第二分節은 回想된 그 시름을 잠간이라도 덜게해 주신 郎의 恩願에 想이 이어져 老花郎이 千萬歲를 누리길 祈하는 祈願이며, 第三分節은 그런 老花郎의 울릴던 모습을, 옆에서 待奉할 수 없으니 잠간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願望이며, 第分節은 願望은 所任으로 因해 願望에 그치니, 郎의 人品과 行蹟을 奉받겠다는 誓願으로 本歌는 構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974. 10.1)